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문화건설안전위원회 -
2023년 합동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문화건설안전위원회

목 차

I. 연 수 개 요	1
II-1. 연수 국가 연구 - 두바이(UAE)	8
II-2. 연수 국가 연구 - 이집트(Egypt)	18
III. 방 문 기 관	26
① 스마트경찰서(두바이-UAE)	26
② 인구위원회(이집트)	30
③ 코이카(이집트)	34
④ 나킬사(두바이-UAE)	37
⑤ 마스다르시티(아부다비-UAE)	41
⑥ 관광유물부(이집트)	44
⑦ 문명박물관(이집트)	48
IV. 시 사 점	51
V. 참 고 자 료 목 록	59
VI. 정 책 제 안 간 담	61

□ 연수동기 및 배경

- 자치경찰제는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제도 자체의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여짐.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선진화된 자치경찰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 최초의 로봇경찰과 무인경찰서를 도입한 두바이 스마트경찰 치안 시스템을 살펴보고 AI시대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인력 운영방향과 우리도에 맞는 미래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대안 제시
- 전라북도는 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현재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 상승 및 유지에 필요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집트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이유와 노동 가능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인구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고 인구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방향 제시
 - 국제 교류·협력 사례를 통해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체류인구 및 청년인구 증가 방안을 제시
- 전라북도는 낙후된 구도심의 성공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새만금 내부도로 개발 승인 이후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공섬 건설사업인 팜주메이라 등 혁신적인 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사례 견학을 통해 특별자치도 법 통과 이후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새만금 일대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구상에 접목하고자 함.
- 화석연료,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 자원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역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운영되는 도시 건설, 순수 전기로 운행하는 무인자동궤도 운행차량, 셔틀, 저상버스 시스템 구축 등이 접목된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도입, 구부러진 건축 설계·배치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교육·비즈니스·연구기관·주거를 효과적으로 통합한 도시계획 사례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스마트시티 개발에 접목하고자 함
-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함을 물론 문화유산 기록화 및 과학적 기술 기반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디지털 대전환 정책이 필요함
- 세계 문명발상지 중 하나인 이집트는 그만큼 오랜 역사와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를 훌륭하게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광 상품화 하고 있어, 이와 관련 우수 선진사례 습득을 통하여 전라북도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 23. 3. 19 ~ 3. 27 [7박 9일]
- 연 수 국 :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EGYPT)
- 연수대상 : 17명 (명단 별첨)
 - 의 원(11) : 행정자치위원 5, 문화건설안전위원 6
 - 직 원(6) : 전문위원실 6
- 연수주제 : 미래형 자치경찰제, 인구정책, 국제교류,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문화재 보호·활용방안 등 선진사례 견학

□ 연수내용

1)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선진사례 습득

- 두바이 국영부동산개발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팜 주메이라 등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마스터 커뮤니티와 주거, 소매, 접객 및 레저 개발의 상징적인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두바이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나킬사(Nakheel Retail Corporation) 방문
 - 나킬사에서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 및 주거·상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청취를 실시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방안 및 구도심 재생사업 등 다양한 정책 방향 제안
-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정부 도시 프로젝트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탄소 제로 도시를 목표로 하는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를 방문
 -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전기차·자율주행차 도입, 에너지 절감 도시계획 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스마트 시티 개발에 접목

2) 자치경찰제 제도 정착 및 선도를 위한 최신 사례 조사

- 세계 최초의 로봇 경찰 및 무인 경찰서를 도입하는 등 무인화 기술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를 방문
 - 두바이 스마트경찰 치안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도에 맞는 미래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3) 고고학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광산업화 선진 사례 습득

- 이집트의 고대 유산과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전반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부기관인 이집트 관광유물부(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ities)를 방문

- 이집트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상품화 사례를 청취함으로써 전라북도 문화재 보존 및 관광산업화 등 활용 방안 연구
- 역사상 가장 초기의 문명인 고대 이집트 문명에 초점을 맞춘 아랍 세계 최초의 박물관이며 지역 및 국제 방문객과 학자를 위한 중요한 문화, 교육, 레크레이션 및 연구센터인 이집트 문명 박물관 (National Museum Egyptian Civilization)을 방문
- 고고학적 연구 및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상황,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문화유산 보존 방식을 견학함으로써 전라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발전방안 도출

4)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 및 국제교류를 통한 인구유입 사례 청취

- 가족 계획, 생식 건강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보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위원회인 국가인구위원회(National Population Council)를 방문
- 인구증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전라북도의 인구정책 방향 제시
- 이집트와의 개발협력과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직업기술훈련, 공공부문 역량강화, 자원봉사단 파견, 여성 인권 사업, 특히 한-이 기술대학설립사업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KOICA 이집트(KOICA EGYPT OFFICE)를 방문
- 이집트 현지의 국제·문화교류 운영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여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 도입 가능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제시

□ 기대효과

- 최초의 로봇경찰과 무인경찰서를 도입한 두바이 스마트경찰 치안 시스템을 살펴보고 AI시대 효율적이고 가치있는 인력 운영방향과 우리도에 맞는 미래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대안 제시

- 출산율이 3.5에 이르는 이집트의 높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현황 및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인구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전라북도의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방향 제시
-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프로젝트인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 시찰, 두바이 국영부동산 개발기업인 “나킬사” 방문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획기적인 대규모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구도시 도시재생 및 새만금 개발계획 수립시 접목 및 미래 전략 마련
- “이집트 관광유물부”, “이집트 문명 박물관” 방문을 통하여 문화재 및 관광 분야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화 관리 및 기록 유산에 대한 디지털 대전환 정책 현황 청취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현시대에 새로운 문화적 상상력을 실현하고 관광 상품화 방안 제시

□ 연수자 명단(개인별 업무내용)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업무내용
계			17명	남14, 여3	
도의회 (17명)	행정 자치 위원회 (5명)	위원장	김이재	여	공무국외연수 총괄
		부위원장	강태창	남	인구정책분야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위 원	송승용	남	인구정책분야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	김정수	남	미래형 자치경찰 분야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	염영선	남	미래형 자치경찰 분야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문화 건설 안전 위원회 (6명)	위원장	이병도	남	도시계획·개발정책 분야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부위원장	김정기	남	문화 교류 및 활용 분야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	문승우	남	문화 교류 및 활용 분야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	이수진	여	도시계획·개발정책 분야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	윤수봉	남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	윤영숙	여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자료조사 및 인터뷰 준비
	행정자치 전문위원	주무관	김형완	남	각종 자료 수집 및 영상기록관리
		"	황지웅	남	의원보좌 및 기록관리
		"	안영진	남	연수단 경비 및 일정 관리
	문화건설 안전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	남	연수 총괄 계획 및 인솔
		주무관	설상일	남	연수단 경비 및 일정 관리
		"	문동환	남	의원보좌 및 기록관리

□ 연수일정

일자	방문지역	공 식 일 정	비고
3/19(일)	전주 인천	- 전주 출발 (17:00) - 인천공항 출발 (23:50)	1일
3/20(화)	두바이	- 두바이 공항 도착 (05:05) - 나킬사(도시개발기업) (09:30) [공식방문] ↳ 국영부동산 개발기업, 팜주메이라 등 혁신적 프로젝트 추진 - 두바이 스마트경찰서 (13:00) [공식방문] ↳ 세계 최초 무인경찰 등 무인화 기술 도입 선도 - 석식 후 호텔투숙	2일
3/21(화)	두바이 아부다비 카이로	- 마스다르시티 공식 방문 (09:30) [공식방문] ↳ 지속가능, 탄소제로 시티 프로젝트 추진 정부도시 - 두바이 출발 (20:50) → 카이로 도착 (23:00)	3일
3/22(수)	카이로	- 이집트 관광유물부 (09:30) [공식방문] ↳ 문화유산과 역사 보호·보존 정책을 계획·추진하는 정부기관 - 국가인구위원회 (13:00) [공식방문] ↳ 건강한 인구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는 NGO단체 - 이집트 문명박물관 (14:30) [공식방문] ↳ 초기의 문명에 초점을 맞춘 아랍 세계 최초의 박물관	4일
3/23(목)	카이로 아스완	- KOICA 이집트 사무소 (09:30) [공식방문] ↳ 문화 교류, 직업기술 훈련 지원 등을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 - 카이로 출발 (18:50) → 아스완 도착 (20:15)	5일
3/24(금)	아스완 카이로	- 아스완댐, 아부심벨신전 견학 - 아스완 출발 (20:00) → 카이로 도착 (21:20)	6일
3/25(토)	카이로 멤피스 카이로	- 멤피스 박물관, 사카라 피라미드 견학 - 카이로 출발 (19:05)	7일
3/26(일)	카이로	- 고고학 박물관 견학	8일
3/27(일)	두바이 인천 전주	- 두바이 도착 (00:40) - 두바이 출발 (03:40) 인천공항 도착(17:00) - 전주 도착(20:30)	9일

1

강력한 통치체제와 혁신적 리더십

- 두바이는 UAE에 속한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이슬람 왕조 국가임
- 정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왕조국가지만 왕조국가의 강력한 통치체제가 통치자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결부되어 국가 차원의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 특이한 사례
- 석유 매장량이 UAE 전체 매장량의 4%에 불과해(아부다비가 94%) 국부창출을 석유수출에 의존할 수 없었던 제약도 오히려 두바이의 혁신적인 변모를 이끈 요인 중 하나임
- 독특하면서 강력한 통치체제와 혁신적 리더십의 조화로 두바이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
 - 굴지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과 투자시장 개방 등 적극적인 외국인 친화정책 추진(외국인 거주민 규모가 두바이 원주민 규모를 압도)
 -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두바이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차질이 발생하긴 했으나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와 인공섬 개장 등을 성공시키며 두바이의 저력 과시
- 특히 2006년 두바이 통치자로 등극한 셰이크 모하메드의 리더십은 두바이가 추진해온 개발전략의 성과를 극대화해 두바이가 세계적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두바이 주요 개발연혁 -

1. 1970년대 초 유전 발견/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창설
2. 1978년 세계무역센터 설립을 계기로 어촌마을이 대표 관광지로 변모하게 됨
3. 1990년대 초 100만명 미만의 관광객이 2012년 1천만 명 이상으로 성장
4. 부르자 알 아랍(Burj Al Arab) 호텔 : 1999년 개장. 7성급 호텔로 인공섬 위에 건설
5. 팜 주메이라 : 2008년 완공, 개장.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주거지, 상업지구, 호텔 등으로 조성
6. 아틀란티스(Atlantis) 호텔 :
2008년 개장. 인공섬 팜 아일랜드에 위치. 1,539개 객실
7. 부르즈 칼리파(Burj Khaklifa) : 2010년 개장, 두바이 국영기업 에마르사가 발주하고 삼성물산 시공, 중동관문의 상징으로 163층, 높이 828m(63빌딩 3배 규모)
8. 2021년 '2020 두바이 엑스포' 개최

* 자료: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개황', 외교부, 2022

2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변모

□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관광진흥 전략 추진

- 2013년 '투어리즘 비전 2020'(Tourism Vision 2020) 발표
 - 재정투자에 의존한 정부 주도의 전략수립 및 추진이 아닌 정부-민간 기업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관광시스템 구축(자료: 월간중앙 1243호, 2014)
 -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가족 여행 목적지로 만들고 이를 위해 테마파크를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핵심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로 활용한다는 전략(두바이관광청 해외총괄이사 인터뷰 기사, 이코노미스트지, 2014)
 - 이를 통해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관광객 유치규모 2천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 설정

- 투어리즘 비전 2020은 두바이 관광전략의 핵심으로서,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레저 및 비즈니스 여행 목적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개최와 인프라 구축, 서비스 및 관광상품 마케팅과 재방문을 제고에 주력해 왔음

□ UAE-두바이 관광진흥전략 시너지

[UAE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운영(UAE관광위원회)]

- 두바이 관광진흥 전략은 토후국의 연합국가인 UAE 차원의 정책 과도 연계관광위원회 출범(2021년)
- UAE관광위원회 참여: 문화관광부, 관광 및 상업마케팅부, 관광 및 고고학부 등이 공동참여하는 다부처 참여기구
- 관광진흥 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UAE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역할

1. 관광정책 및 관련 법제 입안/시행
2. 관광부문 투자 촉진 등 관광산업 진흥 주도
3. 관광진흥을 위한 포괄적인 DB구축
4. 중소기업의 관광기업 지원 등 다양

- UAE가 다부처 참여기구를 통해 관광산업을 진흥하려는 배경에는 그만큼 관광이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임
- 2016년 기준으로 관광부문은 1,591억AED(미화 433억불)
- 이는 UAE GDP의 12.1%를 차지하는 수준
- 317,500개의 일자리 창출로 UAE전체 고용의 5.4% 차지
- 관광부문 투자유치는 총 262억AED(미화 71억불)로 전체 투자규모의 7% 차지(UAE정부포털,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visiting-and-exploring-the-uae/travel-and-tourism>)
- 이러한 UAE차원의 관광진흥 전략은 토후국 중 하나로서 관광산

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두바이의 전략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 두바이 관광시장의 현주소

- 두바이의 연간 외래관광객 규모는 총 1,436만 명('22년)
 - 이는 2013년 공식 선포한 두바이 투어리즘 비전 2020을 통해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하는 수치임(코로나 팬데믹 변수 영향)
- 전체 외래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인도가 1,84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근 국가인 오만과 KSA(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러시아 순이었음

<두바이 국적별 외래관광객 수(2022년)>

국가	관광객수
인도	1,842
오만	1,311
사우디아라비아	1,216
영국	1,043
러시아	758
미국	590
독일	422
프랑스	364
파키스탄	356
이란	328
이집트	288
쿠웨이트	260
이스라엘	239
카자흐스탄	234
이탈리아	212
호주	184
중국	177
캐나다	158
필리핀	158
네덜란드	155
기타	4,065
계	14,360

* 최소 1박 이상 체류한 외래관광객을 집계한 규모임

* 자료: Department of Tourism & Commerce Marketing

- 2023년 최근 외래관광객 규모를 보면 2개월간(1~2월) 310만명으로 서유럽지역 외래관광객이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호주가 2%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 한국을 비롯한 북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은 6%로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팬데믹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백만 명이 증가한 규모이나 2019년 동기 대비는 4만 명이 감소한 수준
- 2개월 간 31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했다면 2023년 총 외래관광객 규모는 2022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엔데믹'의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 풍부한 숙박 인프라와 관광 플랫폼

- 두바이 호텔 및 호텔객실수는 국토면적 대비 압도적으로 풍부
- 2022년 기준 호텔은 총 804개(호텔 610, 아파트형 호텔 194), 객실 수는 146,496개에 달함
- 이러한 풍부한 숙박 인프라는 외래관광객 수용태세의 핵심 요소로서 두바이의 국제적인 관광도시 조성 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민간투자 개방(규제완화 포함) 정책이 결부된 결과임

- 아울러 연간 총 객실 점유율도 77~79%에 달해 두바이 관광시장의 위상을 엿볼 수 있음
- 2020년 520개였던 호텔수는 2021년 567개에서 2022년 610개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증가세는 17.3%)

구 분	2020	2021	2022
호텔수	520	567	610
호텔객실수	100,704	112,796	120,602
아파트형 호텔수	191	188	194
아파트형 호텔객실수	26,243	25,154	25,894
객실점유율	연평균 77~79%		

* 자료: Dubai Statistics Center

□ 두바이 관광산업의 강점

- 두바이 관광산업의 강점은 압도적이고 다양함
-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강력한 브랜드가 구축되어 있고 풍부한 숙박시설과 세계적인 쇼핑몰, 테마파크 등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
- 뿐만 아니라 패스(Pass)형태의 관광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두바이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선택권 제고
 -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 '두바이 패스'는 다양한 관광명소와 액티비티가 가능한 상품을 4개 권종으로 구분하여 판매
 - 화려한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광 마케팅도 병행 주력

<두바이패스(Dubai Pass)>

권 중(유형)	혜택	판매가격 (AED)
두바이 플렉시 어트랙션 패스 (Dubai Flexi Attractions Pass)	40여 곳의 관광명소 이요시 최대 40% 할인혜택. 3/5/7개소 중에서 선택	459~
두바이 셀렉트 어트랙션 패스 (Dubai Select Attractions Pass)	선택한 관광명소에서 최대 50% 할인혜택. 7일간 사용 가능	425~
두바이 언리미티드 어트랙션 패스 (Dubai Unlimited Attractions Pass)	3일 또는 5일 패스 선택 가능. 40여 곳의 관광명소에서 최대 60% 할인혜택	1,189~
두바이 테마파크 패스 (Dubai Theme Park Pass)	테마파크 이용시 최대 40% 할인혜택	424
올인클루시브 패스 (All Inclusive Pass)	2주간 이용가능. 2~7일 패스로	1,149~

* 자료: VisitDubai.com(두바이 경제관광부, Department of Economy and Tourism)

3

과감한 도시개발 정책과 총체적인 전략

□ 장기적인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추진

- 두바이는 1960년대부터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
- 이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2021년에는 ‘2040 두바이 도시 마스터플랜’을 제시함
 - 1960년 이후 일곱 번째 개발계획
 - 이러한 일련의 개발계획 성과로 1960년 인구 4만명에서 2020년 330만명으로 80배가 증가했고, 도시/건축면적은 3배가 증가함
- ‘2040 두바이 도시 마스터플랜’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도시개발과 환경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음

<2040 두바이 도시 마스터플랜 주요 목표>

- 자원 활용의 효율성 향상
- 활기차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조성, 녹지 및 레저 공간의 두 배 확대
-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이동 수단 제공
- 경제 활동 촉진 및 외국인 신규 투자 유치
-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향상
- 문화 및 도시 유산의 보호
- 포괄적인 법률 입법 거버넌스 모델 개발

* 자료: UAE정부포털

<2040 두바이 도시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



- 2040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은 1)녹지 및 여가공간 확장, 2)자연 보호구역 확장, 3) 호텔 및 관광부문을 위한 토지면적 증가(134%), 4)교육 및 보건시설 토지면적 확대(25%), 5)공공해변의 총연장 확장(400%)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마스터플랜의 주요 목표와 내용을 보면 두바이가 외형상 호화스러운 도시 건설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기후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총체적인 개발 전략 수립 및 시행

- 두바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차원의 대규모 종합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그 결과 20여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통해 진주 채취가 전부였던 작은 마을을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시킴
-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계획이 ‘두바이 전략계획 2015’(DSP2015, Dubai Strategic Plan 2015)으로서, DSP2015에는 두바이가 지향하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개발 방향이 담겨 있음

<DSP2015에 담긴 주요 전략과 방향성>

경제발전	사회 개발	인프라, 토지 및 환경 도시계획	안전/안보/정의	정부우수성
GDP성장, 생산성 향상, 경쟁력	사회적 결속, 에미리트 항공 육성, 양질의 사회서비스, 문화생활	에너지 및 운송인프라	보안/질서, 시민권 보호, 사법시스템 강화	미래지향적 조직구조, 책임/효율성 강화 등

* 자료: Government of Dubai(www.dubaiplan2021.ae :: Dubai Strategic Plan 2015)

- DSP2015를 잇는 후속계획으로 두바이플랜2021(Dubai Plan 2021) 수립
- 두바이플랜2021은 두바이 미래계획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전망을 담고 있고, 총 6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두바이 플랜 2021의 6가지 방향성>

1. 사람(행복, 창조, 역량)
2. 사회(포용적이고 응집력 있는 사회)
3. 경험(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방문하고 싶은 장소)
4. 장소(스마트 시티와 지속가능한 도시)
5. 경제(세계경제의 중추 허브)
6. 정부(진취적이고 우수한 정부)

* 자료: Government of Dubai(www.dubaiplan2021.ae :: Dubai Plan 2021)

- 두바이가 오늘날 국제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DSP2015나 두바이플랜 2021과 같이 철저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

※ 물론, 1990년대 후반 이전에도 DSP2015의 이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계획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1960년, 1971년, 1985년, 1995년, 2008년, 2012년)('두바이 도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2021,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즉, 두바이의 현재는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추진되어온 정부 차원의 전략 계획이 꾸준히 진행되어온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 두바이플랜과 DSP2015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장기적이며 총체적인 개발전략 하에 두바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
- (대표적인 예로는) 640불 규모의 두바이랜드, 950억불 규모의 두바이 국제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인공 간척섬으로 조성한 123억불 규모의 팜주메이라(Palm Jumeirah), 140억불 규모의 월드 아일랜드 등 굴지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일련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도시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두바이홀딩스(Dubai Holdings)**와 **나킬사(Nakheel Properties)** 같은 국영기업 주도하에 추진됨

1

문명 탄생지: 강력한 관광매력도와 정치사회적 후진성

- 이집트는 문명의 탄생지로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유역에 최초의 중앙집권국가를 세운 이후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이슬람 문명 등 다양한 문명과 교류해온 지역
 - 이 때문에 이집트는 문명의 탄생지이자 인류의 주요 문명이 교차한 흔적이 남아 있어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기원전 3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은 오늘날 피라미드와 신전을 비롯해 무수한 유적·유물로 남아 있어 관광목적지로서의 이집트의 관광매력도를 극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
 - 2천 곳의 고고학 유적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기자 피라미드와 룩소르 왕의 계곡, 아스완 신전 등 6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
 - 반면, 정치적 사회적 후진성은 강력한 관광매력도에 기초한 이집트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높은 빈곤율과 고위층의 부정부패, 테러위험, 군부가 장악한 국가 리더쉽,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 내재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전체 180개국 중 106위(19)
 - 각종 공공사업권이 군부세력에게 보장되는 등 군부의 영향력이 막대함
- *이집트 정치·경제동향 보고서, 2020.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집트 현지 보조 가이드에 따르면 “대통령과 군인들이 주도하는 이집트 정치는 엉망이다”,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는데 검열과 통제가 심하다보니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머지 않아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달러 대비 이집트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자동차 기름 한 번 주유하는 데 평균임금의 1/6가량을 써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나라이다”라며 매우 강한 사회적 불만을 표했다.

2

이집트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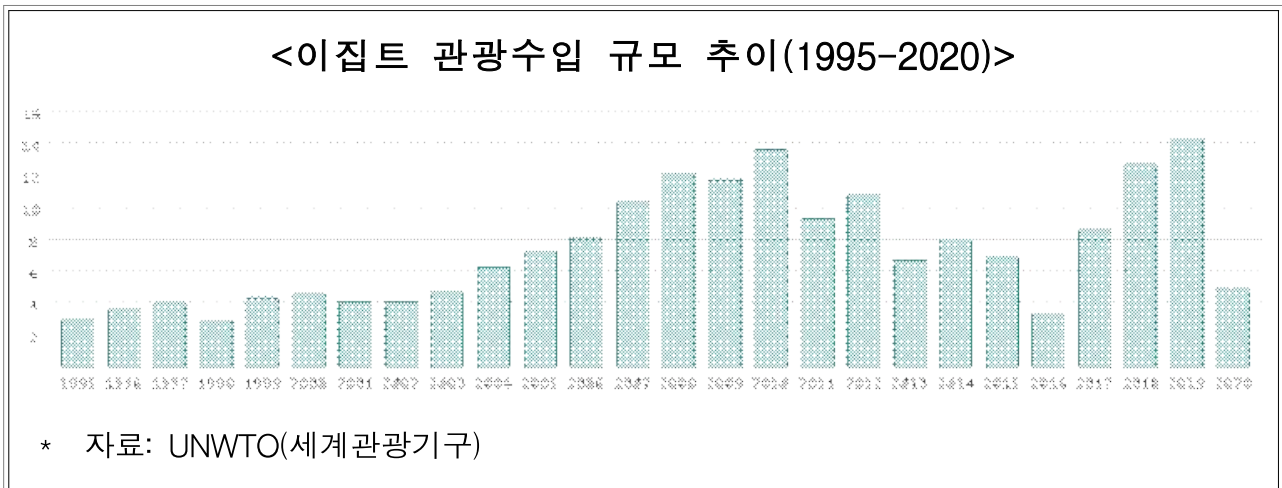
□ 3대 외화 수입원인 관광

- 이집트 관광수입원은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노동자의 송금액, 수에즈운하 통행료와 함께 3대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2019년 이집트 관광부문 수입은 130.3불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강력한 봉쇄정책 영향으로 40억불로 급감한 이후 2021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130억불 회복
- 정부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집트 박물관 개관, 시나이 반도 대변모 사업, 홍해연안 리조트 사업, 알-알라메인 호텔지구 확대사업 등 관광분야 육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이집트 경제/시장 정보,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2022(<https://overseas.mofa.go.kr/>))
- 특히 IMF 차관 도입과 최근 고물가에 따른 이집트 파운드화의 폭락은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고 있고, 자연스럽게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국가경제에 대한 관광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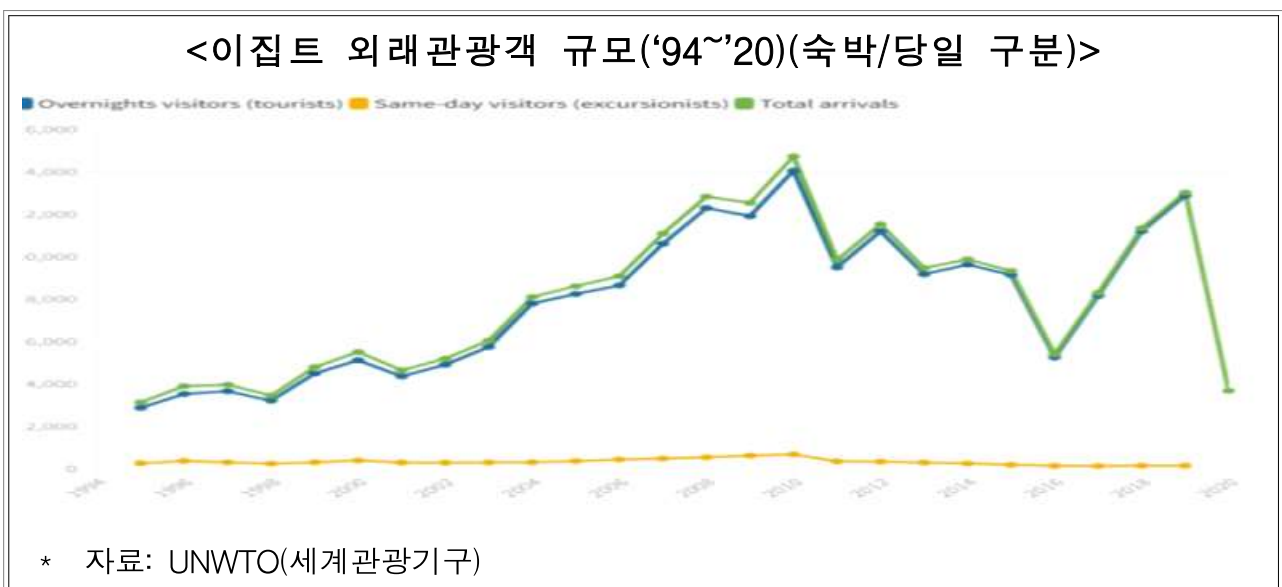
-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이집트의 3대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이자 국부 창출원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하지만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관광부문의 GDP 기여도는 2019년 8.8%에서 2020년 3.8%로 급감했고, 관광부문 일자리도 844,000개가 사라짐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례보고서’, 세계여행및관광위원회(WTTC), 2020)
- GNP로 보면 이집트 관광은 1995년 약 30억불로 이집트 GNP의 4.9%를 차지. 이를 관광객 1인당 지출로 환산하면 943불(2019년 관광객수 313만명)

- 그러나 1995년 이후 25년간 GNP에서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감소
-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관광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였고 외래 관광객수는 1,303만 명으로 관광객 1인당 지출은 1,094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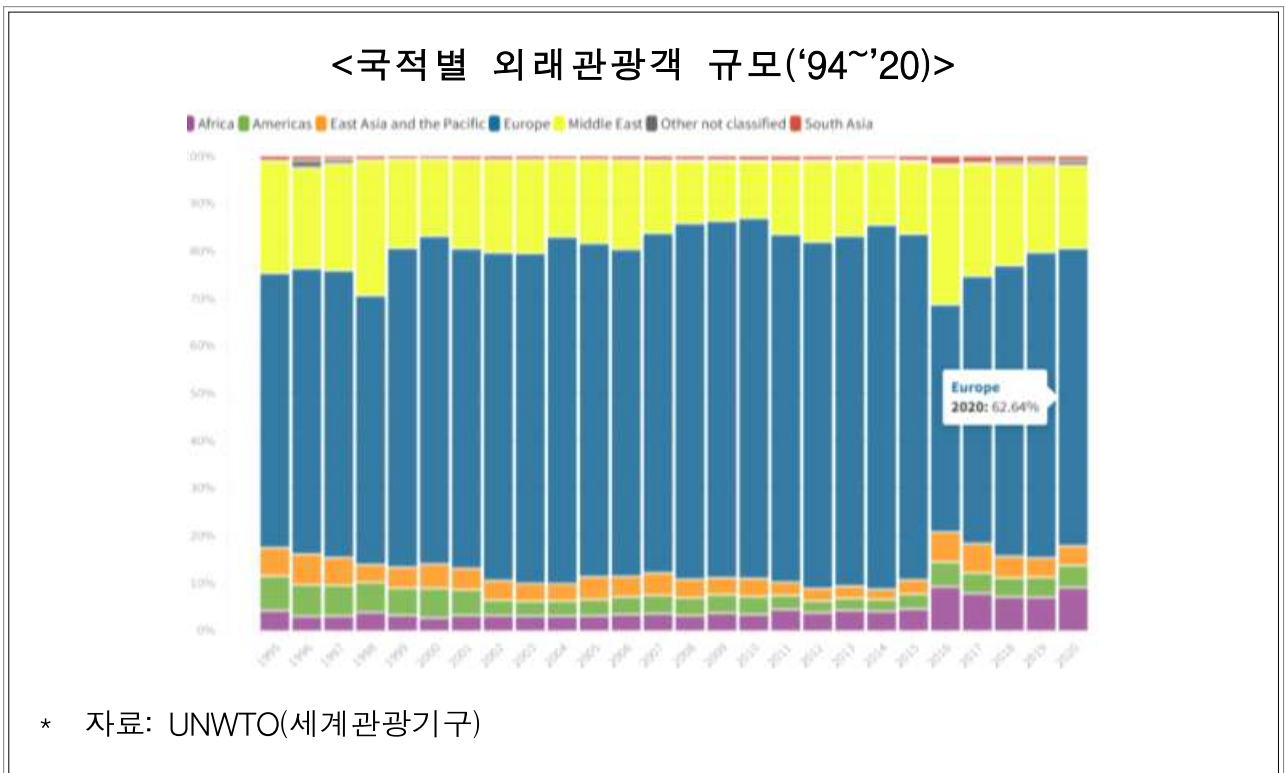


□ 이집트 관광산업의 현주소

- 이집트 외래관광객 규모는 팬데믹 이전 13,026,000명이었음
- 이중 1박 이상 체류한 관광객은 12,876,000명으로 관광객 대부분이 숙박을 하는 체류형 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2010년 14,731,000명이었던 외래관광객 규모는 이후 하락과 증가세를 반복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급감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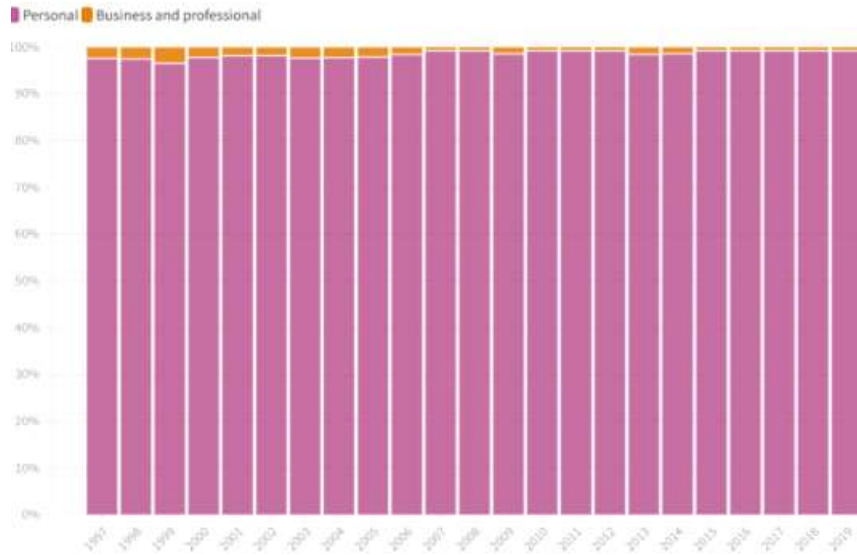
- 이집트 외래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2020년) 유럽이 62.64%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동(17.5%), 아프리카(9.04%)순으로 나타남. 이는 이집트 문명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중동과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 목적별로는 비즈니스는 0.9%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여행 목적
- 외래관광객의 방문목적의 99%가 여행이라는 사실은 이집트 관광 산업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시사

- ☞ 강점: 이집트가 관광목적지로서 외래관광객을 유인하는 압도적인 관광 매력도가 있다는 뜻
- ☞ 약점: 이집트 관광시장이 비즈니스 여행을 포함한 MICE의 비중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순수 여행객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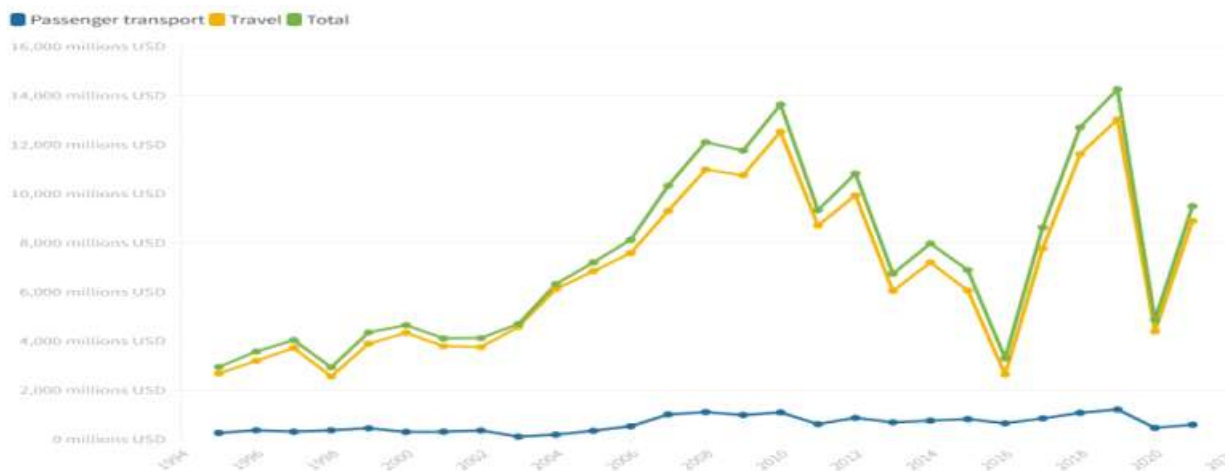
<여행목적별 외래관광객 규모>



* 자료: UNWTO(세계관광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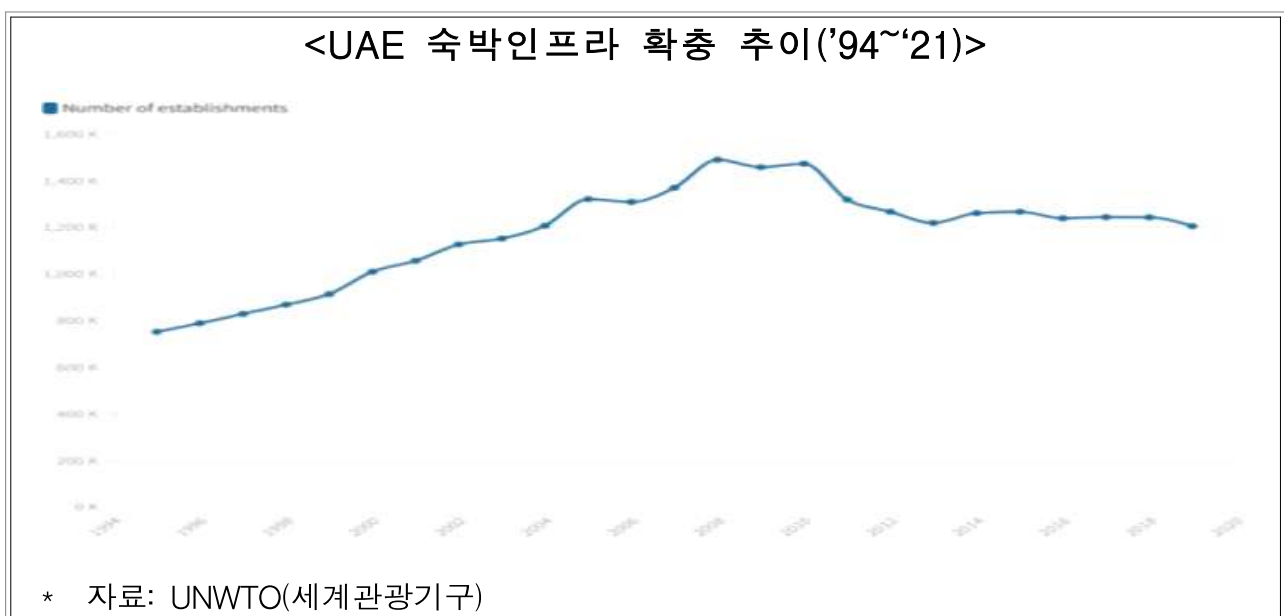
- 이집트 인바운드 시장에서 여행객 지출규모는 88억 9,500만불('21년)인 것으로 나타남
- 여행객 지출규모의 추이를 보면 1994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까지 지소 하향세를 보인 후 재반등

<여행객 지출규모 추이('94~'20)>



* 자료: UNWTO(세계관광기구)

- 숙박 인프라는 2019년 1,205,000개로 2008년 정점(1,490,000개)을 찍은 이후 하향 정체 수준
- 이는 이집트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저조로 관광인프라 확충이 저조하다는 것을 뜻함
- 또한 활발한 민간투자로 숙박인프라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UAE와 크게 대조
 - UAE: 383,000개(1994년)에서 1,144,000개(2021년)로 약 30년만에 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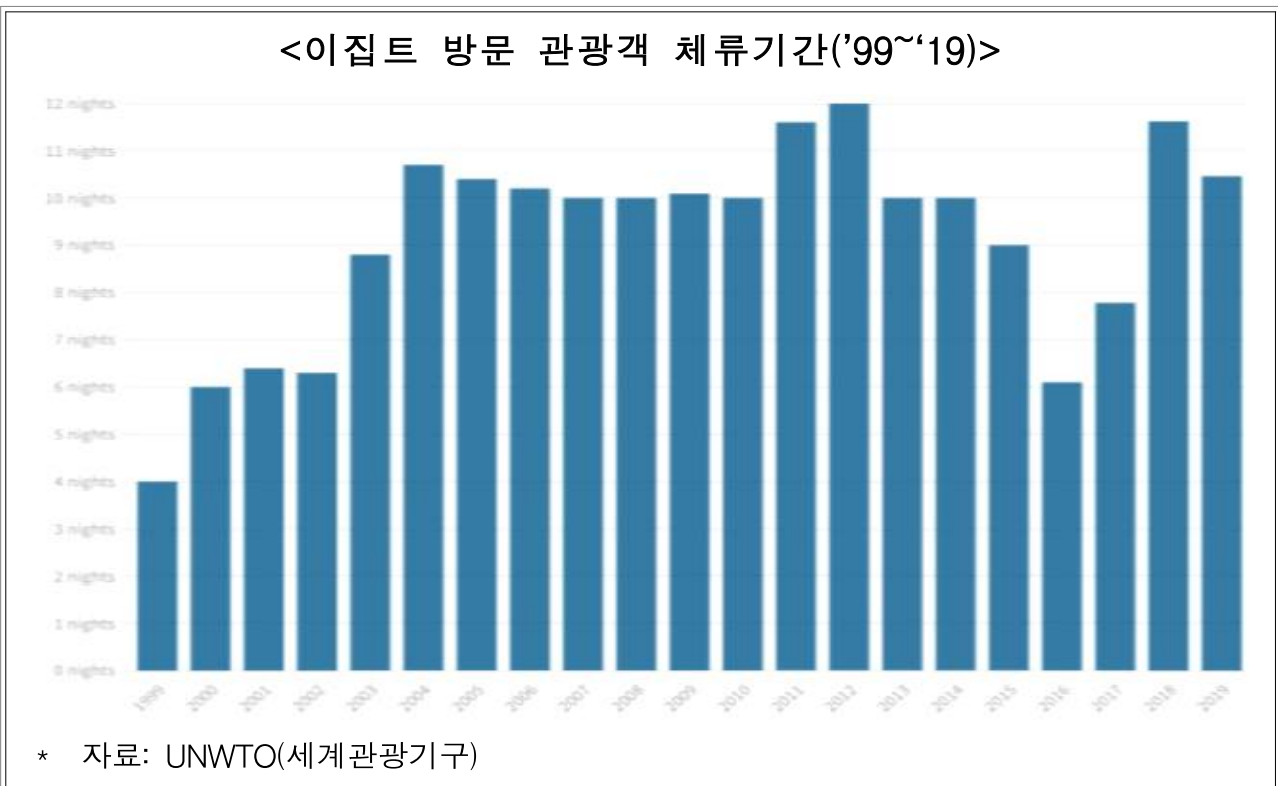
- 숙박인프라 확충 추이와 함께 객실 점유율에서도 이집트와 UAE의 차이는 꽤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이집트 외래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10.46일로 UAE(3.13일)의 3배 이상인 반면, 이집트내 숙박시설의 객실점유율은 UAE에 비해 약 12%가 적었음

<객실점유율 및 평균체류기간 비교(이집트 VS. UAE)>

구 분	객실점유율('19)	평균체류기간('19)
이집트	62.2	10.46일
UAE	74.09	3.13일

자료: UNWTO(세계관광기구)

- 이집트를 방문한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2019년 기준 10.46일로 상당히 체류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관광객의 체류기간은 지출비용의 증가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로 인한 관광수입 증대가 매우 효율적임을 알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달러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이집트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광수입이 주요 외화 수입원이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진흥이 필수
- 실제 이집트 정부는 야심찬 관광산업 진흥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신임 관계장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음(The National News, 2023.1.17.일자, Egypt seeking to attract 30 million tourists by 2028 (thenationalnews.com))
 - 이집트 정부는 향후 연간 25~30%의 관광객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8년에는 3천만 명 유치로 목표를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집중하고 호텔 객실수의 2배 증대, 항공좌석 수 확대, 그리고 홍보 마케팅 강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
 - 또한 출입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 비자 발급을 개시했고, 앞으로도 외래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전개해나간다는 방침

1 두바이 스마트 경찰서 - Smart Police Station

- 방문일정 : '23. 3. 20.(월) 15:00
- 주 소 : Al Mustaqbal St - Al Wasl - Dubai Dubi Smart Police Station SPS - City Walk
- 홈페이지 : www.dubaipolice.gov.ae
- 면 담 자 : Colonel Rashid Al Shehhi
(Vice Director of Bur Dubai Police Station)

- 두바이 경찰은 1956년 설립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 경찰력의 중추적인 비중을 차지함
- 두바이 경찰은 헌법적 권한에 따라 사법집행기관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안전 문제를 관장함
- 최근에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두바이 경찰청, dubaipolice.gov.ae)
 - 아랍지역 국가 중 DNA검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도입한 것도 두바이가 최초 사례
 - 문서 없는 정책(Clean Desk Policy)도 두바이가 처음 도입
 - 포괄적 인권 부서 신설 및 운용도 아랍국가에서는 두바이가 최초
 - GPS를 활용한 순찰 기법도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앞서 도입
 - 이슬람 종교의 완고하고 보수적인 교리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인권보호가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포괄적 인권부서를 경찰 조직 내 신설하여 운용한 사례도 아랍국가들 중에서는 두바이가 최초임
 - 이외에도 두바이 경찰은 민원서비스 절차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전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인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음

○ 스마트 경찰서 도입과 운영방식

- 스마트 경찰서는 일종의 무인 경찰서라고 할 수 있음
- 교통범칙금, 각종 범죄 신고,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 다양한 경찰 서비스가 제공
- 필요할 경우 스마트경찰서 내부에 실시간으로 두바이 경찰센터와 연결하여 화상으로 각종 신고 및 문의도 가능

○ 두바이 경찰서 및 스마트 경찰서 운영 현황



□ 주요 면담내용

☞ 스마트경찰서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 두바이는 셰이크 모하메드 전하의 통치하에 국제도시가 되었다. 두바이 경찰도 두바이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스마트경찰서도 그 일환의 하나로 시작하게 되었다.

☞ **두바이에 총 몇 개의 스마트경찰서가 있나?**

- 현재는 총 13개가 있으며, 이곳이 두바이에서 일곱 번째로 오픈한 스마트 경찰서이다. 2020년 2월에 오픈했고 그 이후로 추가로 오픈한 스마트경찰서 들이 있다.

☞ **스마트 경찰서에는 경찰인력이 전혀 배치가 안 되어 있나? 사람이 없으면 주민들이 와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가?**

-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스마트경찰서라고 한다. 물론 직접 경찰관과 대화하고 싶다면 실시간으로 화상 연결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면 된다.
- 스마트경찰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다. 총 27개의 핵심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이외에도 33개의 세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범죄신고, 교통사고 접수, 증명서 발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 **두바이 거주자는 90%정도가 외국인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들의 국적도 매우 다양하다고 하는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가?**

- 스마트경찰서에서는 각종 발급과 신고 등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필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아랍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총 6개의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래서 아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언어도 추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로봇경찰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로봇경찰을 실제 운용해보니까 효과가 있는지?**

- 로봇경찰은 운용하지 않는다. 들어본 적도 없다.

□ 방문 결과

- 두바이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의 무인화 기술도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재 총 13개 무인 경찰서 운영하여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스마트경찰서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두바이 경찰센터와 화상연결로 범죄신고 및 인증서 요청 등 각종 신고와 문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화상 연결이 또 다른 경찰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
- 또한 교통범칙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커뮤니티 서비스 등 27개 핵심 서비스와 33개의 세부 서비스를 아랍어, 영어 등 현재 6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언어를 제공할 계획임.

○ 두바이 거주자 90%를 차지하는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마트 경찰 활동을 다양한 융복합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민원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례로 범죄경력증명서, 사고사실확인서 발급등을 위해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있어, 사회변화에 따라 두바이 스마트경찰서처럼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경찰행정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과 활용범위 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의무경찰 인원이 줄어들면서 일선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인력난이 가중되고 치안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서 단순 반복 업무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더욱 집중화된 고도화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방문 사진



스마트경찰서 견학



경찰청 화상연결 시연



스마트경찰서 현장면담



관계자 단체사진 - SPS

2

국가인구위원회(National Population Council)

○ 방문일정 : '23. 3. 22.(수) 13:00

○ 주 소 : 12 El Nahda Street, Maadi Entrance #2, Maadi

○ 홈페이지 : <https://popcouncil.org/country/egypt/>

○ 면 담 자 : Nahla G. Abdel-Tawab

(SENIOR ASSOCIATE AND EGYPT COUNTRY DIRECTOR Cairo, Egypt)

- 인구위원회(Population Council)는 총 15개국에 지부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는 국제기구로서, 가족정책과 여성의 역량강화, 청소년 지원, 출산정책 등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제공하고 소외된 인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비정부기구임
- 일반적인 인구정책 보다 더 큰 범위의 연구범위를 가지는 인구위원회는 ■ 건강한 성과 재생산, 여성인권 ■ 청소년(특히 여성) 삶의 환경과 교육 질 개선 ■ 양성평등과 형평성 ■ 기후와 환경 변화가 인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인구의 증감 뿐만 아니라 인구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환경의 변화가 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
- 1978년에 개설한 인구위원회 이집트 지부는 지역주도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연구조사 기관으로서 연구조사 결과를 이집트 정부와 이집트 내 인구조사 전문가, 후원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활용
 - 특히 출산 보건서비스의 질 향상과 미계획 임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에 집중
 - 이집트 보건인구부와 청소년부, 이집트 국가인구위원회 등 정부 유관 부처는 물론 비정부기구와의 협업체계 하에 운영

- 인구위원회 이집트지부가 최근 수행한 대표 연구프로젝트는 이집트 청소년 조사임

- 이집트 청소년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시계열적 조사 -

(1997년 9천명 대상 조사 이후 2022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56,000명 청소년 대상 조사)

- 이집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욕구 증가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수요 증가, 정부기관 취업 선호도 저하, 낮은 국외 이주 욕구, 대가족 선호 및 피임 기피 경향을 객관적으로 밝혀냄
- 이러한 연구조사결과는 이집트 정부의 정책설계에 반영
- 인구위원회 이집트 지부가 추진한 대표사업

1. 이쉬라크(Ishraq) 프로그램

- 이집트 내에서 확산되던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 구체적으로는 12-15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보건/사회적 활동 참여 증진 방안을 모색
- 그 결과 이집트 북부에 소재한 54개 마을의 취약계층 총 3,321명의 여성 청소년과 1,775명의 남성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거둠
- 이후 2008년에는 이집트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쉬라크 프로그램에 30개 마을을 추가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함

2. 성년 및 청소년에 관한 대표 조사(1997년, 2009년, 2014년 수행, 2023년 조사 준비 중)

- 이러한 조사연구활동은 이집트 성인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서 이집트의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에 영향을 미침

* 자료: 인구위원회, <https://popcouncil.org/country/egypt/>

□ 주요 면담내용

☞ 인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리서치 기관이다. 다양한 조사를 하는데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가임기 여성 보호 방안, 가족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다.

☞ 이집트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 우리는 전 세계 15개 국가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국제기구이다. 따라서 이집트 정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 다만, 우리가 수행하는 연구는 모두 이집트 사회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조사 결과가 이집트 정부의 정책설계에

반영된다. 이집트 정부가 우리의 연구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다.

☞ 인구위원회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지는 않는가?

- 대부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역들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 집중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 수를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다. 인구의 변화(감소 또는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과 대응방안 등을 제시한다.

☞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이집트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이집트 인구는 1억 명이 넘는다.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고 빈곤층도 많지만 가임기 여성 한 명당 3-4명을 낳는다. 비록 가난해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는 종교적 믿음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 우리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보다는 건강한 성과 재생산(출산), 여성인권, 청소년 삶의 환경과 교육의 질, 양성평등 등 건강한 인구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조언을 해준다면?

- 여건이 다르고 한국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기는 어렵다.
- 공통적인 점을 조언해준다면 출산과 육아가 여성 고유의 몫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여성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젠더 편향이 있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방문 결과

-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구 설치 -

- 이집트는 열악한 정치·사회·경제적 여건에도 종교적 신념의 영향으로 가임기 1인당 출산율이 평균 3~4명을 유지하는 등 매년 2%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와 함께 주요 경제활동층인 청장년층의 비중이 큰 것도 주목할 만함.
- 인구위원회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가임기 여성 보호 방안, 가족정책을 주로 다루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성년 및 청소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집트의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인구증가(감소) 및 인구변화로 발생하는 교통난, 주택난, 교육격차 및 빈부격차, 청년일자리 공급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이집트 정부에 제시하고,

이집트 정부는 국가인구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연구조사 결과를 정책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가 국가 위원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출산에 대한 문화적 관념이 이집트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전라북도의 저출산 극복대책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함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에 연구전문기관을 별도 설치하고 효율적인 인구계획 수립과 추진 및 효과적인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 조직(가칭 인구활력추진단) 설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방문 사진



국가인구위원회 현장면담



관계자 단체사진 - 국가인구위원회

3

코이카 이집트 사무소(KOICA - Egypt Office)

- 방문일정 : '23. 3. 23.(목) 09:30
- 주 소 : World Trade Center 18th floor, 1191 Corniche El Nile, Cairo, Egypt
- 홈페이지 : https://http://www.koica.go.kr/sites/egy_kr
- 면 담 자 : 김진영 소장

- 1998년 설치된 코이카 이집트 사무소는 30년 간 이집트와의 양자간 개발협력을 담당하고 있음.
- 이집트 사무소는 특히 청년실업과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기술훈련 분야를 주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역량강화와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도 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기술협력의 형태로 시행 중임
- 한편, 한국과 한류에 대한 이집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봉사단원을 파견하는 WFK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간 문화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음.
- 특히 한-이 기술대학 설립사업을 통해 베니수에프 기술대학을 설립하고 직업기술교육 품질 향상과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직업 훈련 교육과정을 구축하고 있음.

□ 주요 면담내용

- ☞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국내에서는 청년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원봉사 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이집트 코이카의 상황은 어떤지?
 - 코이카 해외봉사단원은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하고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워낙 신청자가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생각해보면적 없으나 코로나로 인한 자원봉사자들의 출입국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 한-이집트 기술대학 설립하고 운영중이라고 들었는데, 교육이나 학업성취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 베니수에프 기술대학은 실제 대학이고 직업훈련 교육시설과는 다른 개념임
 - 우리는 교육과 행정지원, 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전북도의경우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대학들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절실한 상황임, 이집트의 경우 한국 유학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 대한민국 많은 대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알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일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해서는 대학입학률이 높은 편이지만 이것은 국가 무료 공공 교육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고 실제 해외로 유학을 할 수 있을만큼 경제적 여건이 있는 가정에서는 유럽권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는 편인 것 같다.
 - (직원 인터뷰) 실제로 이집트 학생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려면 개인이 부담을 감수하고도 유학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대학의 존재나 현지 수준의 저렴한 교육과 생활비용이 보장되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중이거나 추진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정책이 있는지?
 - 특별히 없는 것 같다. 코이카는 교류보다는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있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국가에 원조를 한다거나 하는 사업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또한, 상대적으로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지역은 자치단체와 교류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단체와는 점점 자체가 없어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이집트 내 룩소르-경주, 알렉산드리아-인천, 카이로-서울시 자매·우호교류지역
- ☞ 우리도는 특별히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행자위 소관이기도 하고 신흥 교류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번을 계기로 이집트와 접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음.

□ 방문 결과

- 교육사업을 통한 한국-이집트 국제협력 증진 -

- 코이카는 이집트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한국-이집트 기술대학교를 설립하는 등 직업기술훈련 분야 지원을 통해 양국 간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이집트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농업기술원이 협력하여 우리도의 농업기술을 이집트에 접목할 수 있는 ODA사업 발굴 및 확장하여 우리도의 농생명 기술을 전파하고 이집트 지자체와 교류협력이 필요함.

▶ 또한 한국과 한류에 대한 이집트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19 이전까지 한국에서 자원봉사단원이 파견되어 이집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ODA사업과 함께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신흥국가 국제교류 확대 필요 -

○ 국내 지자체와 이집트 지자체와 자매·우호협력을 맺고 있는 지역은 룩소르-경주, 알렉산드리아-인천, 카이로-서울 3곳으로 카이로에는 서울공원이 있을 정도로 한국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11개 지역과 자매·우호협력을 추진하고 있어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도 국제교류센터를 통해 신흥 교류지역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과 점점 마련이 필요함

□ 방문 사진



KOICA - Egypt 현장면담



관계자 단체사진 - KOICA

4

나킬 사 (Nakheel) - 두바이 국영부동산회사

- 방문일정 : '23. 3. 20.(월) 11:00
- 주 소 : King Salman Bin Abdul Aziz Al Saud Street ,Al Sufouh 2
- 홈페이지 : <https://www.nakheel.com>
- 면 담 자 : Eng. Hussain Hassan Khansaheb
Director, Marine Engineering

- 나킬은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2000년도에 설립
 - 나킬(및 두바이홀딩스)은 두바이 정부가 석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하고 상업과 교역을 통한 경제구조로 변화하고자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
- 나킬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대부분 규모가 있는 것으로서 100억불 이상의 프로젝트만 16개를 추진중
- 나킬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분야도 커뮤니티 조성과 주거, 소매상업, 레저 개발 등,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나킬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는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로서 두바이의 기존 해안선(70km)에 300km이상을 추가하여 주거단지과 리조트, 호텔 등 명소로 개발
- 나킬과 두바이홀딩스 등 사실상 두바이 왕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국영회사는 2008-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모라토리엄을 선언 하기도 했으나 이후 안정을 회복
 - 두바이 모라토리엄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동산 수요의 위축이 촉발됐고 두바이도 직격탄을 맞으며 분양시장 침체와 자금 경색에 직면했던 사건(「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의 영향과 시사점」,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나킬사의 대표 프로젝트>

		
<p>팜 주메이라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섬 3개의 야자나무 형태의 인공섬 구성 계획인 팜 아일랜드 프로젝트 일환</p>	<p>주메이라 제도 빌라, 맨션, 타운하우스를 포함한 고급 해안가 레지던스(46개 섬으로 구성)</p>	<p>국제도시 번성하는 주거지역에서 저렴한 생활 제공, 아파트 포함 22,000개의 레지던스가 10개의 테마 구역을 통하여 제공됨</p>

○ 나킬사(社)의 지향점(나킬 공식홈페이지, <https://www.nakheel.com>)

1. 사회적 책임(CSR)

- 나킬사 내외부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다양한 시도 전개
- 직원과 거주자, 고객 등 대내적 범위에서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아시아 지역 쓰나미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구호와 시리아 난민 구호 활동을 펼침
- 이외에도 두바이 국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 아랍어 문맹률 퇴치를 위한 ‘The Translation Challenge’ 후원, 교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도로안전 캠페인 전개, 환경인식 개선 등

2.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나킬의 대표 프로젝트인 팜주메이라 내 알 이티하드 공원(Al Ittihad Park) 조성 후 공원 내 60여종의 토착 식물 생태계 조성. 가뭄과 햇빛에 강한 식물들로 공원 내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물과 에너지 사용의 감소와 경관조성 및 환경보호 효과를 복합적으로 달성
- 이외에도 2,300개의 태양열 가로등 설치와 팜 주메이라 구역 내 에어컨 사용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전개

3. 환경보호(Environment)

- 팜 주메이라(Palm Jumeirah), 더 월드 아일랜드(The World Island), 데이라 아일랜드(Deirah Island) 등, 나킬의 대표적인 해안개발 프로젝트는 두바이의 기존 해안선을 500km이상 확장시킴
- 이러한 모든 프로젝트는 설계와 건설 과정에서 폭넓은 연구조사가 진행

○ 주요 면담내용

- ☞ 국영기업인 나킬이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 장단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영기업이라고 해서 민간시장을 절대 침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두바이 정부의 방침은 외국인 친화정책,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민간시장 존중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이 민간시장에 개입하거나 그들의 역할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 없다.
- ☞ 사전 검색을 통해 아보니 나킬이 추진한 팜주메이라와 같은 해안 프로젝트가 가라앉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인가?
 - 사실이 아니다. 모든 지형은 서서히 침하하기 마련이다. 팜주메이라도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이다. 특별히 우리의 프로젝트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세계 각지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고 적극 참고하려고 한다.
- ☞ 위에서 조망해보니 정말 대단한 규모이고 놀랍다. 다만 너무 화려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접근성이 없을 것 같은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없나?
 - 우선, 우리는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신 저임금 노동자라고 표현한다. 취약계층이라는 말에는 어떤 편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지금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팜주메이라와 같은 구역에는 고가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주거단지도 위치가 다른 구역에 조성하고 있다.
- ☞ 대규모 인공섬 조성 시 환경파괴 위험도 있었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했나?
 - 프로젝트를 통해서 환경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양 생태계가 개선됐다. 프로젝트 이전에는 해안선이 훨씬 짧았고 단조로웠는데 보는 것처럼 인공섬 건설로 해안선이 복잡해지고 길어졌다.
 - 그리고 인공섬 조성을 추진하면서 두바이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철저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건설을 해나갔다. 일례로 인공섬 내부의 바닷물이 고이지 정체되지 않도록 양쪽에 바닷물이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터놓았다.

- 인공섬 조성 이후에도 우리는 해양생태계 조사를 이어가며 관찰하고 있는데 최근 두어 달 전에도 해양생태계 조사를 한 바 있다. 그 조사에서도 어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인공섬 조성에 따른 해양생태계 개선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 연수결과

- ▶ 두바이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새만금 개발사업 역시 파격적인 규제 완화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 전북특자도 출범에 앞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전라북도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례발굴 및 반영이 필요함

□ 방문 사진



나킬사(社) 면담



관계자 단체사진 - 나킬

5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

- 방문일정 : '23. 3. 21.(화) 09:30
- 주 소 : CJP9+JQ2 - Khalifa City - Abu Dhabi
- 홈페이지 : <https://www.masdarcity.ae>
- 면 담 자 : Michelle Sabti - Corporate publicist

- 마스다르시티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계획 도시로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 청정 기술 기업을 위한 허브로 설계되었으며, 도시전체를 '석유 이후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온실가스과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
 - '세계 최초 탄소 제로도시'를 지향하면서 태양열, 지열,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있고, 아부다비의 다른 건축물보다 에너지와 물을 약 40% 덜 소모하고 있음
- 마스다르시티는 '화석연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의 동력을 전기로 활용하고 있음
 - 대중교통수단은 모두 순수 전기자로 크게 무인자동궤도 운행차량(PRT, Personal Rapid Transit), 오토넘(Autonom) 셔틀, 저상버스로 이뤄져 있음
 - 이 중 자율주행차인 6인승 PRT와 12인승 오토넘 셔틀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음
- 또한 1) 마스다르시티는 연구·개발 단지과 비즈니스·투자자유구역을 통합한 하나의 생태계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테스트베드인 동시에 2)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화를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이며, 3) 현재 입주 기업은 에티하드항공,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 미쓰비시중공업, 국제재생에너지기구본사 등이 있음
(마스다르시티, <https://www.masdarcity.ae>)

- 하지만 실제 방문 결과 마스다르 시티가 지향하는 탄소제로도시는 일종의 지향점이자 시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인위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바람을 활용한 전통 가옥의 냉방 문화를 활용한 윈드타워(wind tower)도 실사용을 위한 목적이거나보다는 하나의 시범적인 과제로 구현을 해놓은 수준이었음
- PRT나 오토넴 등 무인궤도차량도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무인이동장치지만 마스다르시티 전역에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음
- 이외에도 마스다르시티는 특정 지점에서 풍향을 고려한 건물 배치 사례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바람길 조성을 위해 건축물과공간 배치를 한 것을 두고 탄소제로시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음

□ 주요 면담내용

- ☞ 탄소제로시티라는 개념은 들어봤지만 실제 구현된 사례는 처음 본다.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 탄소제로 개념은 기본적으로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를 포집해서 제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제로 수준으로 한다는 것도 탄소제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마스다르시티도 이런 개념의 탄소제로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도 탄소제로는 실제 구현된 것이 아니다. 하나의 지향점이자 실험적인 프로젝트다.
 - 탄소제로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탄소제로는 포기할 수 없는 지향점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나마 도전을 하고 있다.
- ☞ 자동화된 궤도차량은 언제 도입했고 이걸로 마스다르시티 전역을 이동할 수 있나?
 - 무인 궤도차량은 10여년 전에 유럽의 기술을 적용해서 도입했다. 당시만 해도 상당히 첨단 기술이었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올드(old)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 무인전동차량으로 많은 곳을 다닐 수 있긴 하지만 구석구석을 다닐 수는 없다. 노선을 계획해서 깔고 주요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면 유용하다.
- ☞ 윈드타워가 인상적이다. 두바이 민속촌에서 보니까 중동지역은 기후 특성상 실내가 매우 더워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집 위에 굴뚝같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실내로 바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전통적 가옥형태가 있다고 들었다. 윈드타워도 그런 방식인가?

- 그렇다. 전통적인 문화를 최신 기술과 접목해서 구현해 놓은 것이다. 실제 이 윈드타워는 작동하고 있고 효율성이 있다. 사람키보다 높은 곳에서 부는 풍력을 실내로 끌어들이어서 시원하게 하는 방식은 인위적인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이다.
- 다만, 윈드타워도 하나를 세우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확산시킬 정도의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

☞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언해준다면?

- 갈수록 기후위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제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탄소제로나 청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의지의 문제다.

□ 연수결과

- 마스다르시티(Masdar City) 역시 탄소중립을 실현한 사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나 현지 방문 결과 탄소중립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시범적인 파일럿 프로젝트의 형태로 구현하는 수준

☑ 탄소제로는 포기할 수 없는 지향점이며 가치이기 때문에 실험적인 도전자체는 의미가 있고 마스다르시티와 같은 각 지역의 사례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전북도에 도입 필요

□ 방문 사진



마스다르시티 현장면담



관계자 단체사진 - 마스다르시티

6

관광유물부(National Population Council)

- 방문일정 : '23. 3. 22.(수) 10:00
- 주 소 : 7 Al Adel Abou Baker, Abu Al Feda, Zamalek
- 홈페이지 : https://http://www.koica.go.kr/sites/egy_kr
- 면 답 자 : Amr Abdallah
(General Supervisor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 이집트는 문명 발상지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포함한 무수한 유물 유적이 산재해 있어 이를 보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고,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이를 시행하는 중추적인 정부기관

- 이집트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현황(7개) - (유네스코, unesco.org)

1. 아부 메나(Abu Mena 1979)
2. 고대 테베 및 네크로폴리스(Ancient Thebes with its Necropolis 1979)
3. 카이로(Historic Cairo 1979)
4. 기자에서 다슈루에 이르는 멤피스 및 네크로폴리스 피라미드 지역(Memphis and its Necropolis-Pyramid Fields from Giza to Dahshur 1979)
5. 아부심벨에서 필라에 이르는 누비안 기념물(Nubian Monuments from Abu Simbel to Philae 1979)
6. 성 캐서린 지역(Saint Catherine Area 2002), 와디 알 히탄(Wadi Al-Hitan(Whale Valley) 2005)

- 실제 이집트 정부는 약 200년 전에 이미 이집트 유물의 밀거래 등 불법적인 국외 반출 등을 금지하는 칙령을 제정한 바 있음(1835년)
(이집트 관광유물부, 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es)
- 이후 해당 칙령은 현대에 들어와 법률 형태로 총 세 차례의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유물보호법」(The Antiques Protection Law No.117) 1차개정 1983년, 2차개정 2010년, 3차개정 2018년)
- 당시 공포한 칙령에는 이집트 유물유적 보존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알-아즈베키야공원(al- Azbekiya Park)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
-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서구유럽이 이집트 유물을 대규모로

약탈해간 이후였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

- 서구 열강이 무단 반출해간 이집트 유물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오벨리스크(이집트가 고대 로마의 지배를 받을 당시부터 오벨리스크 약탈이 시작)
- 현재 이집트에 남아 있는 오벨리스크는 단 5개에 불과
(KBS 2007. 1. 7일자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279652>)
- 이에 이집트 정부는 국외 밀반출된 문화재 반환을 위해 2000년대초부터 노력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유네스코협약(1972)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반입국들이 거부
- 이집트관광유물부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정부 문화재 정책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유네스코의 지원 및 협업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
※ 이집트 정부-유네스코의 협업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
- 유네스코에 대한 의존도는 이집트 정부 독자적으로 문화재 보존과 연구조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임
※ 이집트 아스완에 소재한 ‘하이담’ 건설시 수몰예정지에 있던 신전 유적을 현위치로 이전시킨 것도 유네스코였음
- 유네스코의 문화재 보호지원에는 고대 유적뿐만 아니라 근현대 유산과 사회적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포함
- 일레로 룩소르 지역 나일강 서안에 위치한 뉴 구르나 마을(New Gourna Viallge)은 20세기 중반에 조성된 건축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지원 하에 기술적 자문과 재정 지원을 받아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유네스코, <https://www.unesco.org/en/articles/safeguarding-hassan-fat-hys-architectural-legacy-new-gourna>)
- 유네스코의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원사업: 세계적인 문화 유적 활성화 현상과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을 감안하여 유적지 내 유적 및 문화재 소개 방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
※예) 유적 및 유물에 내포된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정보가 방문객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재 소개 패널 제작방식 개선

□ 주요 면담내용

☞ 이집트 정부 문화재 보존 정책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 많이 찾아서 연구하고 전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집트에는 정확히 얼마만큼의 문화재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유물유적은 1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 하지만 유적 보존에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발굴조사부터 전시, 복원 등 한 개 유적만 보존하는 데에도 큰 돈이 들어간다. 이집트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 한국의 지원도 도움이 컸다. 한국정부는 이집트 문화재를 기록관리하는 데 필요한 첨단 기술을 지원해줬다. 디지털 아카이빙이 그렇다. 이집트 정부는 경험이나 기술이 없는데 한국의 우수한 노하우와 기술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빙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

☞ 세계 각지의 유명박물관을 가면 귀중한 이집트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모두 국외반출된 것으로 아는데 반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잘 알다시피 이집트 유물의 국외반출 역사는 오래 됐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의 유명 박물관과 같은 곳에 가보면 실제 상당한 이집트 유물이 전시돼 있다.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두 되찾아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 일부 성과가 있긴 하다. 예를 들면 독일로부터 이집트 국립도서관에서 도난당한 고대 지도책자와 사카라 유적에서 도굴된 유물을 반환받았다. 스위스도 20개가 넘는 이집트 고고학 보물을 반환했다. 모두 최근의 성과였고, 유네스코협약에 따른 반환이었다.

☞ 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1970년대 초에 유네스코협약이 체결되면서 국외 반출된 문화재 반환을 위한 국제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네스코 협약을 근거로 끈질기게 요구할 수 있지 않나?

- 유네스코협약은 1972년의 일인데 그 이전에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협약이 있어도 일단 이집트 문화재를 손에 쥔 국가들은 반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협약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 반출된 문화재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다 환수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집트 정부는 방향을 바꿔서 중요문화재만은 꼭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 연수결과

○ 전라북도 문화재 행정도 지난해 “문화유산 1,000건 시대 개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문화유산 발굴과 차별화된 가치 조명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화재 정책 분야는 별도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과 관련 학예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이 필요함

□ 방문 사진



관광유물부 면담



관광유물부 면담



이집트 관광유물부 전경



관계자 단체사진 - 관광유물부

- 방문일정 : '23. 3. 22.(수) 14:30
- 주 소 : Ein as Seirah, Old Cairo,
- 홈페이지 : https://http://www.koica.go.kr/sites/egy_kr
- 면 담 자 : Dr. Ahmed Ghoneim - 문명박물관 관장
최병선 공사 - 이집트 대사관 총영사

- 2021년 개관한 NMEC는 이집트 정부와 유네스코의 협업으로 건립
- NMEC 건립 및 개관에 앞서 이집트 정부가 유네스코에 NMEC 건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1982년)
 - 유네스코와 이집트 정부 관련 당국은 미적/기술적으로 진일보한 NMEC 건립을 위해 공동 노력
- NMEC는 '메인홀', '미이라홀', '텍스타일(textile)홀', '염색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전시실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부터 고대로마와 이슬람 문명, 근현대 이집트 문화 등 이집트가 거처온 다양한 문명의 흔적을 담아 전시

-문명박물관 주요 기능-

- 교육센터 : 취학 전 아동들과 대학생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유물 복원팀 : 유기물과 비유기물, 회화작품 등 유물의 특성에 따른 과학적 복원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조사연구 활동 병행
- 과학연구실 : 무산소 연구실, 미생물 연구실, 고고학 연구실, 미이라 연구실, 고대 DNA연구실, 방사능 편년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과 장비를 활용해서 유물 조사 연구

※ 자료: NMEC 홈페이지, <https://nmecc.gov.org>

- NMEC는 이집트를 대표하는 대표 박물관으로 이집트를 찾는 관람객의 주요 방문지가 되고 있음(람세스2세 등 대표적인 파라오의 미이라가 있음)
 - 2022년 2월에는 주말 동안 12,000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NMEC를 찾아 개관 이후 최대 방문객 규모를 기록함(<https://english.ahram.org.eg/News/460986.aspx>)

□ 주요 면담내용

☞ **관장님이 생각하는 박물관의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달라.**

- 박물관은 단순한 관람 장소가 아니다. 이집트 문화와 역사, 유물을 보고 배우기 위한 곳이다.
- 박물관을 개관한 이유는 여행객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오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집트가 여러 문명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런 문명들을 수집해서 한 번에 보도록 하기 위해 문명박물관이 필요한 것이다.

☞ **박물관에 전시되는 유물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전시공간을 구성했는지?**

- 박물관의 내부 구성에 따라서 유물 전시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세히 신경을 썼다. 앞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전시는 여러 첨단 기술을 접목해서 마련된 전시다. 빛이나 디지털 기술, 영상 기술을 활용한 전시가 있다. 문명박물관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만 배우는 장이 아니라 다양한 문명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아직 전시하지 않은 유물들이 35,000점가량 되고 6,000점가량이 전시되어 있다.

☞ **박물관에서 다른 문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봤던 특정 유물과의 유사점을 이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이집트 문명이 페르시아 문명 등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는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다.

☞ **이집트 전역에 어느 정도의 유물이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유물을 보관 전시하는 박물관은 몇 개나 되는지?**

- 미발견 유물이 대부분이고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집트에는 크게 3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이집트 그랜드 박물관이 곧 개관 예정이다. 개관하면 여기로 유물을 옮겨갈 예정인데 이집트 그랜드 박물관에 일본이 가장 큰 펀딩(funding)을 해서 일본어 병기를 할 예정이다.
- 그리고 이집트 박물관 최고 위원회가 관할하는 두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하고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이다. 그만큼 위상이 높다는 뜻이다.
- 국립박물관 지하 수장고에는 수많은 유물이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걸 제2의 발굴이라고 할 정도이다.

□ 연수결과

- ▶ 이미 발굴된 유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발견하는 과정에 재투자 필요
- ▶ 유물에 대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는 유물에 대한 흥미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함
- ▶ 전라북도의 역사·문화를 연구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방문 사진



박물관장 면담



박물관 홍보영상 시청



문명박물관 견학



관계자 단체사진 - 문명박물관

IV

시 사 점

1 최상위 변수: 정치 또는 정치적 리더십

○ 두바이 VS. 이집트

두 바 이	이 집 트
소규모 어촌마을에서 세계적 국제도시로 탈바꿈	문명의 발상지로서 압도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빈곤/부패지수 높은 저개발 국가
자원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관광)자원에 편중된 경제발전
외국인 친화정책과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추진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과도
민주주의가 아닌 이슬람 왕조국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최고 통치자의 강력하고 혁신적인 리더십	억압적 군사정권의 폐쇄성과 검열정치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 고조

- 두바이의 통치체제는 이슬람 왕조국가로서 비민주주의 정치체제인 반면, 이집트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민주국가임
- 하지만 오늘날 두 국가가 처한 현실은 극명히 대조됨
- 두바이는 진주 채취를 주된 생업으로 하는 작은 어촌마을에서 세계적인 국제도시이자 관광목적지로 부상했고,
 - 이집트는 군부정권 체제하에서 국민들의 비판적 견해를 검열하는 폐쇄적인 사회를 조성하며 여전히 높은 빈곤율과 부패로 신음하고 있음
- 이러한 극명한 차이의 기저에는 '정치'라는 요소가 결정적으로 작용
- 두바이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왕조국가로서의 특성이 통치자의 혁신적 리더십과 결부되어 오늘날 두바이를 가능하게 했음
- 이와 달리 이집트는 외형만 민주국가일 뿐, 억압적 군사정권의 비합리적 리더십이 고질적인 빈곤과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광산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실을 초래함

- 결국 이 두 국가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정치(또는 정치적 리더십)이 국토개발과 관광산업을 포함한 국가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최상위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2 개방정책을 통한 체질변화의 중요성

- 두바이의 석유매장량은 UAE 전체 매장량의 4%에 불과하고 아부 다비의 매장량이 94%를 차지함(KOTRA해외뉴스, dream.kotra.or.kr/kotranews)
- 두바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 특히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의 개발전략을 수립·추진 하면서 외국인 친화적이고 친자본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 인구의 대폭 증가와 도시의 대규모 확장 성과를 성취
 - ※ 두바이 거주민 중 원주민보다 외국인 거주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만 봐도 두바이가 얼마나 외국인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지 알 수 있음
- 적극적인 개방정책은 두바이를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추적인 허브로 거듭나게 함(두바이FDI 모니터링 사이트, www.dubaifdimonitor.ae / 두바이정부 정책홍보사이트, <https://mediaoffice.ae/en/news>)
 - 2015년 이후 2,619억 2십만 AED 이상의 FDI를 유치했고, 이 중 59.08%가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
 - 2022년 전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80.2% 증가한 492개의 FDI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함
 - 세계적 항공사로 부상한 에미레이트 항공은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14.6% 성장한 137억 2천만 AED의 FDI 유치
 - 2022년 상반기만의 FDI 성과로 15,164개의 신규 고용이 창출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5% 성장한 수치
 - 주요 투자국은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등

○ 두바이 정부의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대외정책은 두바이를 'FDI의 천국'이자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시켰고, 나킬(Nakheel)을 위시로 한 일련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원천이 되었음

▶ 두바이의 사례에 비주어볼 때 새만금 개발사업 역시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 시급

▶ 전북특자도 출범에 앞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관한 전라북도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례발굴 및 반영 필요

3 첨단기술 도입의 필요와 허상

○ 두바이는 스마트경찰서와 로봇경찰 도입을 경찰행정의 혁신 사례로 대대적인 홍보하였으나 그러나 현지 방문 결과, 로봇경찰은 도입이 아닌 시범 단계에 그친 것으로 보여짐

※ 두바이경찰은 다중 언어 서비스가 가능한 로봇경찰을 배치해서 범죄신고나 벌금 납부 등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2017.5.24.일자 BBC뉴스(www.bbc.com/news/technology-40026940)

- 대대적 홍보에 비해 실제 도입된 성과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첨단 기술을 경찰분야에 도입하려는 시도와 고도화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임

▶ 우리도에서도 화상연결을 통한 경찰 상담, 키오스크를 활용한 민원, 범죄 및 사건신고,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서비스, 각종 증명 발급 등 경찰 행정 서비스 선도적 시범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마스다르시티(Masdar City) 역시 탄소중립을 실현한 사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나 현지 방문 결과 탄소중립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시범적인 파일럿 프로젝트의 형태로 구현하는 수준이었음

- 탄소중립 보다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도입과 공간 설계를 시도하고 있는 수준

▶ 전라북도에서도 첨단기술과 행정의 접목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또는 첨단기술을 산업화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는 접근이 필요함

4 관광진흥, 결국 기본이 중요

- 이집트 관광산업의 핵심은 이집트 문명이 남긴 유산으로서 전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수한 유적과 유물이며 여타 관광목적지와 비교할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구성요소		주요 내용
문화 체험	시대구분	역사적 흐름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요인
	지리적 특징	문명의 형성과 발전의 원동력인 지리적 특성의 이해
	종족	문명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종족에 대한 이해
	권력구조	고대문명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
	종교	고대인들의 종교는 문명과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미침
	예술	예술은 고대문명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척도
	문자	문자의 발명은 고대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농업 및 상공업	농업과 상공업의 구조 이해
즐거움 추구	오락, 음주문화 등 즐거움을 추구했던 방식에 대한 재조명	
육체·정신적 휴식	고대인들이 추구했던 육체적 정신적 휴식에 대한 재조명	

*자료: 세계 4대문명의 관광매력요인 비교연구(이영관, 2005)

-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홍해와 지중해에 연접해 있어 해양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도까지 보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관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 관광산업의 현실
 - 이집트 정부의 3대 외화 수입원 중 하나가 관광산업일 정도로 관광의 비중이 크지만 산업으로서 진흥·육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적임
- 연구에 의하면 전세계 관광객의 55%가 이집트 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집트 관광산업 진흥의 문제는 수요부족이 아님을 시사해줌(The National News, 2023.1.17.일자, thenationalnews.com)

○ 문제의 핵심은 기본의 결여(인프라와 수용태세 부족)

1. 불충분한 항공노선과 호텔수용능력 부족

-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국가는 모두 저비용 항공사 운항노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이집트는 예외
- 호텔 객실도 210,000개에 불과해 수용능력 태부족
- 지난 수년 동안 호텔 객실수 확대가 없었고 현재 이집트 관광정책 당국은 약 3십만 개의 추가 객실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The National News, 2023.1.17.일자, Egypt seeking to attract 30 million tourists by 2028 (thenationalnews.com))

2. 관광지 내 기본 편의시설 태부족

- 기자 피라미드와 아스완 신전 등 연수단이 방문한 이집트 관광지는 세계적 명성이 있는 곳이었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었음
- 현지 무더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관광객을 위한 그늘 쉼터도 없었고 화장실 이용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수준이었음
- 심지어 기자 피라미드 구역 바로 인근에서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절개지가 형성되어 한 눈에 봐도 위태로워 보일 정도였음

○ 강력하고 독보적인 관광매력도와 콘텐츠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관광산업 육성으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기본 인프라와 수용태세 부족이 원인으로 보임

- 아무리 훌륭한 관광자원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음

▶ **전라북도의 관광정책 역시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에 매몰되지 않고 기본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 병행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문화재 정책의 요체: 중장기 계획과 재정투자

- 이집트는 문명의 발상지로서 비교 불가능한 역사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 정책은 이를 온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재의 양적 규모가 방대한 탓도 있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접근과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요인
 - 실제 주요 유적지와 이집트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방문한 결과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적 유물 관리가 허술해 보였음
 - 피라미드 인근의 절개지 방치
 - 관람객과 유물의 물리적 접근을 방치하는 유적지 현장 등
 - 일레로 아부 메나(Abu Mena)는 1970년대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후 2001년 훼손 위기에 놓인 세계유산으로 분류됐지만 아직까지 긴급 조치가 필요한 훼손 위기의 세계유산으로 남아 있음(유네스코 세계유산기구, <https://whc.unesco.org/en/list/90>)
 - 이집트의 사례는 문화재 정책이 중장기 계획과 재정투자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존관리와 활용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 문화재 행정도 지난해 “문화유산 1,000건 시대 개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문화유산 발굴과 차별화된 가치 조명을 한다고 강조
 - 그러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재정투자에 소극적이고 전문 학예인력도 확충하지 않는 문화유산 1천건 시대는 무의미
- ▶ 따라서 재정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화재 정책 분야는 별도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학예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음**

6

출산율과 문화적 관념의 상관성

- 이집트는 빈곤율이 높고 장기간 지속된 군사정권의 부패가 심해 저개발국가의 늪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심지어는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을 군인 출신 또는 군부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보장해줄 정도임
- 흥미로운 점은 이집트의 열악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신념의 영향으로 가임기 여성 1인당 출산율이 평균 3-4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임
- 실제 이집트 인구 규모는 60년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960년 27,034,499명 → 2021년 109,262,178명으로 4배 이상 증가 (세계은행, worldbank.org)
 -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와 함께 주요 경제활동층인 청장년층의 비중이 큰 것도 주목할 만함(이집트 동향 브리프, 한국무역보험공사, 2022년 1월)



- ▶ 출산에 대한 문화적 관념이 이집트 인구증가를 견인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전라북도의 저출산 극복대책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 '22년 전국 지자체 ODA 규모는 62억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현재 전북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본청 기준 15개 국가에 86개 지역과 자매·우호 교류를 결연하고 있으나, 북미, 아시아, 유럽대륙에만 한정되어있음.
- 전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프리카대륙은 14개 지자체에 22개 지역에 불과할 정도로 교류의 접점이 부족한 상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80>)
- ▶ **우리도에서도 신흥 교류지역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지역과 점점 마련 우선 필요**
- ▶ **국제교류센터를 통해 우리도의 농업기술을 이집트에 접목할 수 있는 ODA사업 발굴 및 확장하여 우리도의 농생명 기술을 전파하고 이집트 지자체와 교류협력이 필요함**
-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소멸의 대안으로 외국인 개발도상국의 유학생 유치에 유도하고자 하지만, 현지의 소득수준이나 유학 희망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할 것
- ▶ **개발도상국의 청년인구를 도내 대학 유학생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감수하고도 유학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대학의 존재나 현지 수준의 저렴한 교육비와 생활비용 보장이 가능한 사업 확대가 필요함**

국 내

1. ‘두바이 및 북부 에미리트 개황’, 외교부, 2022
2. 월간중앙 1243호, 2014
3. 두바이관광청 해외총괄이사 인터뷰 기사, 이코노미스트지, 2014
4. 이집트 정치·경제동향 보고서, 한국무역보험공사, 2020
5.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의 영향과 시사점」,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6. 이집트 경제/시장 정보,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 2022
7. KBS 2007. 1. 7일자 기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279652>
8. KOTRA해외뉴스, dream.kotra.or.kr/kotranews
9. 세계 4대문명의 관광매력요인 비교연구, 이영관, 2005
10. 이집트 동향 브리프, 한국무역보험공사, 2022년 1월
1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https://www.gaok.or.kr/gaok/exchange/list.do?menuNo=200080>)

국 외

1. UAE정부포털,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visiting-and-exploring-the-uae/travel-and-tourism>
2. Department of Tourism & Commerce Marketing
3. Dubai Statistics Center
4. VisitDubai.com(두바이 경제관광부, Department of Economy and Tourism)

5. Government of Dubai(www.dubaipplan2021.ae :: Dubai Strategic Plan 2015)
6. Government of Dubai(www.dubaipplan2021.ae :: Dubai Plan 2021)
7.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례보고서’, 세계여행및관광위원회(WTTC), 2020
8. UNWTO(세계관광기구)
9. The National News, 2023.1.17.일자, Egypt seeking to attract 30 million tourists by 2028, thenationalnews.com
10. 나킬사 공식홈페이지, <https://www.nakheel.com>
11. 두바이 경찰청, dubaipolice.gov.ae
12. 마스다르시티, <https://www.masdarcity.ae>
13. 유네스코, unesco.org
14. 이집트 관광유물부, Ministry of Tourism and Antiques
15. 유네스코, <https://www.unesco.org/en/articles/safeguarding-hassan-fathys-architectural-legacy-new-gourna>
16. NMEC 홈페이지, <https://nmec.gov.org>
17. Ahram지 온라인판 2022.2.13.일자 기사<https://english.ahram.org.eg/News/460986.aspx>
18. 인구위원회, <https://popcouncil.org/country/egypt/>
19. 두바이FDI 모니터링 사이트, www.dubaifdimonitor.ae / 두바이정부 정책 홍보사이트, <https://mediaoffice.ae/en/news>
20. BBC 2017.5.24.일자 기사,WWW.BBC.COM/NEWS/TECHNOLOGY-40026940
21. 유네스코 세계유산기구, <https://whc.unesco.org/en/list/90>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해외 선진지 국외정책연수 후 정책제안 간담회 결과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및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해외 선진지(두바이·이집트) 정책연수를 통해 견학한 우수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전북도에 적용가능한 정책방안을 논의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3. 4. 27.(목) 14:00 /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
- 참석자 : 30여명(상임위 의원 및 전북도 관계자)
- 주요 내용 : 우수 정책사례 발표, 정책발굴 방향 논의 등

□ 주요 제안내용

방문기관	연수내용	소관부서
스마트경찰서 (두바이)	- 로봇경찰 및 무인화시스템 - AI 기반 미래형 자치경찰제	자치경찰행정과
국가인구위원회 (이집트)	- 출산율 부흥 사례 - 노동인력 확보 방안	청년정책과
KOICA 이집트사무소	- 한국-아프리카 간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이집트 현지의 국제·문화교류 운영현황	대외협력과
나킬사 (두바이)	- 인공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 주거·상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역정책과 주택건축과
마스다르 시티 (아부다비)	- 탄소제로 배출 등 에너지 절감 도시계획 - 전기차·자율주행차 도입 등 스마트 시티 교통망 구축	지역정책과 교통정책과
이집트 관광유물부 (카이로)	- 문화유산 반환을 위한 타 국가와의 협력 현황 - 고대 유산·역사 보호·보존 정책 청취	문화유산과

□ 주요 참석자 명단

소속	성명	소속	성명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수봉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수진
청년정책과	한병삼	지역정책과	이찬준
대외협력과	송주섭	교통정책과	권민호
자치경찰행정과	정광모	주택건축과	설상희
문화유산과	하태욱	관광산업과	이미숙

□ 간담회 사진



□ 주요 발언 내용

담당부서	주요 내용	연수기관
청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조직진단을 통해 8기 공약사업인 인구청년 지원센터를 발전시켜갈 계획임. ● 인구활력추진단 필요성에 대해 조직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것임 	국가인구위원회
대외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별 교류지역 확대 예정이며, 국제교류 센터를 통해 기후·스마트 농업관련 ODA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코이카에서도 이집트와 기술연수 위주의 협력 사업을 시행중이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KOICA 이집트 사무소
자치경찰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상 청장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 이후 경찰청과 협의하여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음 	두바이 경찰청
관광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음 ● 또한, 여성 선호 고급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음 	이집트 관광 유물부
문화유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도의 문화유산 양은 적지 않으나 마한부터 후백제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망라할 수 있는 문화유산 보전과 전시 방안 마련을 위해 검토하겠음 ● 학예 연구인력 부족은 현실적인 문제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언택트 전시를 구상하고 있음 	이집트 관광 유물부, 문명 박물관
지역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은 국토부에서도 도시계획에 도입을 장려하는 개념으로 우리도 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인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음. 	마스다르 시티
교통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자율주행 실증단지 R&D사업과 고군산군도, KTX 익산 자율주행 시범운영지역 등을 토대로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 교통편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마스다르 시티
주택건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향상을 위한 지원은 공공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유일하지만 우리도에서도 탄소제로 시티를 목표로 지속 노력하겠음 	마스다르 시티

